

16/02/07(주) 주일예배 / 제목 :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출 16:13~30) p.107

(13)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둔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둔지니라 하셨느니라 (17)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19)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1)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스러졌더라 (22)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23)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4)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25)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26) 옛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30)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13~30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본 구원이지만 정확하게 그 뜻이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기에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서론** /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 ‘광야 인생’이라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유래한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여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려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당장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서 가나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오직 믿음이었습니

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그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것도 사실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들과 동일하게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광야 인생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본론 /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

**1. 우리의 인생은 광야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인생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곳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렘 2:6) “...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또한 신명기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 8:15) “...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문명이 발달되어서 살기 좋아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누구에게나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언제 어디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고와 질병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과연 어떻게 길을 찾아갈지 몰라 방황하며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광야 인생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학업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해합니다. 20~30대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돼서 ‘취업 빙하기’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하도 어려우니까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서 ‘3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장년들은 직장에 다니면 언제 해고될지 몰라서, 사업을 하면 앞날이 불투명해서 불안해합니다. 노년층은 100세 장수시대라고 하지만 그 기나긴 세월동안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고 언제 어떤 질병이 닥쳐올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 자신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막연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떤 불안도 떨쳐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 1. 우리의 인생은 광야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 2. 광야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광야 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단순히 만나만 먹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 아침 이슬이 내릴 때 마치 서리 같이 생긴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입니다. 그 명칭의 유래는 1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신기해서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 이냐?”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만 후’입니다. 이 말이 변이되어 ‘만나’라는 명칭이 된 겁니다. 이처럼 너무 신기한 음식입니다. 그것을 매일 아침 내려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저 진 밖으로 나아가 주워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지만 40년 동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출 16:35)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이나 척박한 땅에서 먹을 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하루에 내려주신 양식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메추라기는 제쳐두고 만나만 따져 봐도 하루 1인당 1호멜입니다. 1호멜은 2.3리터입니다. 어림잡아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니 전체는 300만 명쯤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690만 리터(3,000 t)를 내려주신 겁니다. 이는 10t 트럭으로 매일 300대분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0년×365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루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먹는 식비만 계산해 봐도 수 억 원이 넘을 것임. 먹고만 사나요? 옷도 있어야 살고, 집도 있어야 살고, 그 외에 돈 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데 계산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 들고 왔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지혜자이고 그런 사람만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육신을 위해 만나만 먹은 사람들로서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겉으로 보면 똑같은 만나를 먹었지만 사실은 말씀을 먹고 산 사람들로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만나만 먹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진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가져 오되 하루 분씩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기들 생각과 욕심대로 행동했습니다. 내일 또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욕심으로 많이 거두어 오고, 하루 지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벌레가 생기고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참 믿음이 없

었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19~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또 모세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제6일에는 이틀 분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자기 생각대로 하루 분만 가져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만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진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결국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나갔다가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허탕을 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일곱째 날에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양식으로 만나는 먹었지만 결국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만나뿐 아니라 영혼의 만나인 말씀도 먹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 공급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십시오.

(신 8: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로 거듭나고 참 성도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곧이 곧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루 분만 가져오려면 하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떨습니까? 육신의 양식으로 만나만 구하는 형식적인 신자들은 자기 머리를 굴려서 제6일에 하루 분만 가져오고 그 다음 날 안식일에 아침 일찍 나갔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22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22~24절) “22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23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4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말씀대로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틀 분을 가져왔는데 다른 날과 달리 벌레가 생기거나 썩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주

일로 완성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보면 '매주 첫날'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안식 후 첫 날 즉 주일을 가리킵니다(행20:7, 고전16:2). 그리고 계 1:10 에는 명시적으로 '주의 날' 즉 주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과도기적으로 안식일과 주일을 겸하여 지키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주일만 지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믿음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긴다면 주일 성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만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 믿음만 있다면 광야 인생이라도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적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7대 표적(기적)이 나옵니다. 각각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른바 기적의 공식인데, "믿음+순종=기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외에 친구약 성경 도처에 이런 공식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렘 7:23)** " ...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또 신명기 28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신 28:1~2)** "1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 28:1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 6:31~33)**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

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험한 세상에 살 동안 이런 믿음과 순종을 최고의 자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손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순종을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복 받고 자손들이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순종 없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만 풍요롭게 산 사람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6:47~50)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광야의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만 만나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천국까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떡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던 모든 것은 결국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오직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영원한 것입니다. (벤전 1:24~25) “24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은 광야 생활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만나만 먹어서는 안되고, 영혼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생애동안 믿음과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광야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광야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요약정리** /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

1. 우리의 인생은 광야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2. 광야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